

'카페 게르부아에서 인상파를 만나다'

전주문화재단, 6월 25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인상파 작가 6인 작품 47점 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6월 25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카페 게르부아에서 인상파를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상주의를 태동시킨 인상파 작가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두아르 마네, 폴 세잔, 앙리 판탕 라투르, 장 프레데리크 바지유 6인의 작품 47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말 프랑스 바티볼 지역의 자연 배경을 영감으로 시작해, 빛과 색채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해 그린 작가들의 대표작품 47점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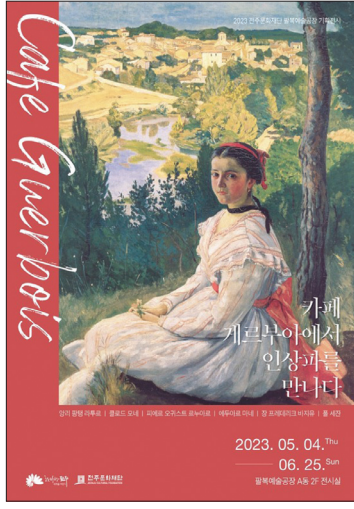
특히 6인의 인상파 작가들은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를 탄생시킨 주역들로 자연과 빛에 대한 통찰을 화폭에 그대로 담아낸 클로드 모네, 삶의 경험과 자연을 대담한 색채로 화려하게 표현해낸 르누아르, 인상주의 아버지라 불리며 강렬한 색채로

도시 생활과 여성 누드를 주제로 삼았던 에두아르 마네, 기하학적 형태와 견고한 색채를 잘 결합해낸 폴 세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을 완성한 앙리 판탕 라투르, 빛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물들의 일상을 잘 표현해낸 장 프레데리크 바지유다.

김진 차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상주의 작가들의 대작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새로운 예술 사조를 탄생시킨 작가들의 삶과 고뇌를 함께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로,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특히 작품관람과 함께 전시설명이 듣고 싶다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카페 게르부아에서 인상파를 만나다' 포스터

주말 전주한옥마을서 버스킹 공연 열린다

시, 7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버스킹 운영... 13일까지 공연팀 모집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3 한옥마을 SING STREET' 사업에 참여해 한옥마을에서 버스킹을 진행할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오는 7월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면 국악과 대중음악, 퍼포먼스 등 장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일정액의 공연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gyouth18@daum.net)으로 심사를 위한 공연영상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영숙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2023



한옥마을 SING STREET'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들에게는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전주시체육회-한국전통문화전당 '맞손'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시체육회가 지역 전통·문화와 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8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김도영 원장, 박지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따라 두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체육·교육·체합·전시·행사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기타 다양한 교류와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 회장은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마이스산업 등 각 분야가 따로 가는 게 아닌 하나로 뭉쳐서 갔을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체육회는 지역의 전통과 현대, 문화, 예술, 체육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국 최연소 회장으로 선출되며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예향·예체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마이산 음악회' 13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마이산 음악회'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행사로는 캐리커처, 방향제 만들기, 뜨개질 체험 등 지역 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가수 이범학·양지원·이상한계절·이희정밴드의 음악공연, 마술사 박태영의 신기한 마술 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마이산의 5월은 녹음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며 "이 아름다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문화재단 공식 출범 '첫 발'

첫 발기인 대회 갖고 사업계획·예산안 등 심의 의결

군산시가 8일 문화예술 정책추진 전담기구인 군산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첫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임원, 활동가, 대학교, 세무·회계사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20여명이 발기인에 참여해 문화재단 설립취지문,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향후 임원을 공개모집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후 전라북도에 문화재단 설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확보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재단 설립을 진행 중이다. 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문화재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화정책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으로 자유로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는 등 군산의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적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